**제4차 실무위원회**

* **개요**

|  |  |
| --- | --- |
| 기간 | 2004-01-12 ~ 2004-01-15 |
| 장소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국제컨벤션센터 |
| 주관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
| 참가 | 4개국 24개 자치단체 67명 |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산둥성, 허난성, 닝샤후이족자치구  |
| 일본국 |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
| 대한민국 |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 러시아 연방  | 하바롭스크변경주, 캄차카변경주, 자바이칼변경주 |

* **내용**

|  |  |
| --- | --- |
| ▷ 상설사무국 설치에 관한 논의▷ 회원단체자격 재확인에 관해 논의▷ 연합마크 제정 방안

|  |
| --- |
| **▷ 각 회원단체의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회원단체간 인재교류 방안****▷경제, 무역, 환경보호 등에 관한 교류 및 협력강화 방안** |

 |

* **합의문**

2004년 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개최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4차 실무위원회 회의에 중화인민 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의 24개 연합회원단체에서 파견한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회원 각 대표는 동북아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강화를 둘러싼 주제로, 평등, 우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공동의 관심인 경제, 무역, 환경보호 및 연합상설 사무국 설치 등 의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인식을 같이 하였다. 각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의 대표는 회의에서 각 분과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하였다.

동시에 2002년 9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개최한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제4차 총회의 결의정신에 근거하여, 중국 흑룡강성, 일본 효고현, 토야마현, 대한민국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등 6개 자치단체 대표가 2004년 1월 12일에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에서 상설사무국 설치에 관한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6개 회원단체 대표가 연합 상설 사무국의 설치, 기능, 임기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현재 제4차 실무위원회 회의 토론사항 및 의견일치 사항에 대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상설사무국 설치에 관한 문제

연합사무국은 제4차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설사무국에 관한 전문위원회 토론결과를 보고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상북도는 회의에서 상설사무국을 경상북도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효고현은 연합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상설사무국의 기능ㆍ임기 등에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4년 임기제로 하되, 임기만료 시, 연합 총회에서 차기 상설사무국의 회원단체를 선출해야 하며, 연임 가능하다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임기제 도입을 동의하는 것과 동시에, 6년 임기제를 제시하였다. 각 회원단체 대표는 이상 2개 지역의 제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비록 상설사무국의 기능ㆍ임기ㆍ 설치지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으나, 상설사무국의 기능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일본 효고현의 제안을 기초로 하여, 양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사무국이 상설사무국의 기능에 대한 건의안을 각 회원단체의 의견을 종합 채취하여, 결과를 9월에 개최하는 제5차 총회에서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Ⅱ. 연합 자치단체 회원인정여부에 관한 문제

효고현의 대표는 연합회원자치단체의 인정방식을 설명하고, 연합 헌장에 근거하여 연합총회에 참가한 동북아지역내의 지방 정부를, 곧 연합 회원단체로 간주하나, 각 국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단체의 명칭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회원대표에게 이에 동의를 구한다.

Ⅲ. 연합 깃발 제정에 관한 문제

일본 토야마현과 중국 흑룡강성은 공동으로 회의에서 연합 깃발 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야마현과 흑룡강성의 대표는 제안한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회원대표는 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고, 표결을 통해 연합 깃발제정에 관한 제안을 통과시켰으며, 장차 이 제안을 9월 제5차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Ⅳ.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각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는 본 회의에서 분과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1 환경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은 연합 환경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단체로서, 2003년 10월에 토야마현에서 개최한 제5차 환경분과위원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회의에는 일본, 중국, 몽골, 대한민국 등 4개국 14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토야마현은 이 회의에서 재차 차기 환경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당선되어, 임기가 2005년 7월까지로 연장되었다. 동시에 환경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을 소개하였다.

 (1) 환경정책과 관련된 교류정보(참가단체: 일본, 러시아 자치단체)

(2) 동북아지역 국제환경세미나(참가단체 : 일본,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자치단체)

(3) 동해, 서해연안의 부유물질 관련 조사 실시 (참가단체 : 일본,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자치단체)

(4) 동북아지역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참가단체 : 일본,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자치단체)

회원단체대표는 향후 활동방침 및 계획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토야마현에서는 또한 이 현에서 발행한 "2003 환동해환경백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가하였다

2 일반교류 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은 연합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단체로 2003년 10월 토야마현에서 개최한 제5차 일반교류 분과 위원회 상황을 보고하였다. 제5차 일반교류 분과위원회 회의는 모두 5개국 16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회원대표인 토야마현이 제정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인재양성을 취지로 “인재 양성 행동계획”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이하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1) 동북아여성회의 개최

(2) 동북아지역 아동, 청소년 상호교류 활동 전개

3 방재분과위원회

일본 효고현은 방재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단체로 회의에서 방재분과위원회 활동현황을 보고하였다. 방재 분과위원회는 3개국 11개단체로 구성되어 아래의 활동을 주로 전개하였다.

 (1) 방재대책체제 및 정보교류의 의향으로 조사진행

(2) 한신대지진의 교훈과 경험을 통보

(3) 2002년 7월 효고현에서 중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등 국가의 12개 자치단체 대표가 참가한 방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대표와 방재와 연관된 정보를 교환하였고, 향후 행동방침 및 활동내용을 제출하였다.

 (a) 동북아지역 방재정보 수집ㆍ발표

(b) 동북아지역 각 자치단체 위주로 연구단을 접수하여, 효고현 및 효고현이 실시하는 방재대책에 연수를 진행한다.

4 경제ㆍ통상분과위원회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경제통상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2002년, 2003년 두 차례 개최한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2002년 5월, 5개국 18개 회원자치단체가 참가하는 경제 통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회의의 주요 토론의제는 다음과 같다.

 (1) “동북아기업박람회” 개최. 제6차 총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동북아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회원단체간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2) “동북아 전자무역” 공동홈페이지를 구축할 것을 건의 2003년 9월, 5개국 18개 회원단체가 참가한 경제통상분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민간기업간 교류의 강화를 취지로 한 의제를 제출하였다.

 (a) 연합회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b) 동북아경제통상 공동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자치단체간의 교류를 더욱 구체화하며 더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자치단체가 각 분과위원회 활동에서 많은 유익한 활동을 하였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개최한 활동을 통해, 연합회원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였으며, 연합의 부단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Ⅴ. 연합회원간 인재교류 강화에 관한 의제

회원대표는 연합회원지역간 인재교류 강화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인재교류를 전개하는 것은 동북아지역 각 자치단체간의 협력에 유리하며,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였다고 여겨진다.

Ⅵ. 연합 각 회원단체간의 경제ㆍ무역, 환경ㆍ보호 등 영역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의제

경제ㆍ무역, 환경보호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 활동전개에 본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으로, 또한 연합의 취지를 재현하였다. 회의의 많은 대표들과 동북아지역자치단체간의 경제, 무역 영역의 교류 및 협력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1 일본 토야마현의 대표는 동북아지역 무역 및 투자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이 현의 일본해 무역교류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전개 상황을 전개하였다.

 (1) 동북아지역의 무역동향, 투자환경 등 정보 제공ㆍ수집

(2) 동북아지역의 기업이 참가하는 전시상담회 개최

(3) 현 내의 기업이 참가하는 동북아 지역 내에서 개최하는 샘플 전시ㆍ판매회 지원

2 중국 흑룡강성의 대표는 회의에서 “협력교류 확대, 공동 번영실현”라는 의제를 보고하였다. 회의대표들에게흑룡강성의 경제 발전 및 투자관련 유리한 조건을 소개하는 동시에, 흑룡강성에서 실시하는 동북3성 노후공업기지 재진흥 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였고, 흑룡강성의 발전을 많은 기회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또한 외국투자자 및 기업가들에게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동북아지역의 각 국 경제계, 기업계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동발전을 이룩되길 희망하였다.

3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지역의 대표는 회의에서 변경지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변경지역합작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단체를 신청하였으며, 본 사무국은 변경합작분과위원회 설치의 의제를 9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5차 총회를 개최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4 대한민국 경상남도 대표는 회의상에서 회의대표들에게 “2004 대한민국국제기계박람회”에 회원단체를 초청하였고, 연합회원 지역내의 기업이 적극 참가하여, 회원 단체간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길 희망하였다.

5 중국 산동성 대표는 본 회의에서 산동반도 제조업기지의 상황을 소개하였고, 또한 2004년 5월 2일 ~ 5월 4일 산동성 위해시에서 중소기업중심으로 개최되는 “2004 제2차 동북아 경제논단”과, 2004년 9월 15일 ~ 9월 17일 “산동성 생태성 건설고위논단 및 그린산업박람회“에 대해 소개하고, 동시에 각 회원단체를 참가를 희망하였다.

6 대한민국 강원도의 대표는 각 회의대표에게 대한민국의 최남단에서 시작하여, 북한 - 중국- 러시아 - 유럽을 횡단하는 대륙횡단 철도를 구축하여, 주변도시의 물류와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파생하여, 각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7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대표는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 상황을, 연합 각 회원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희망하였다.

8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표는 회의에서 제6차 연합총회개최와 동시에, 의장자치단체가 “동북아기업박람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일본 효고현과 토야마현은 먼저 제6차 순회사무국 소재지를 확정한 후, 다시 이에 대해 토론하길 희망하였다.

Ⅶ. 차기연합 순회사무국에 관한 문제

본 회의에서, 흑룡강성은 이번 연합 순회사무국으로서, 회원 단체 중 차기 연합순회사무국 후보지 신청을 받아, 각 자치 단체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부산광역시는 회의에서 차기 연합 순회사무국을 유치할 것을 신청하였다. 회의는 본 연합 사무국이 회의이후에, 연합 각 회원단체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9월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Ⅷ.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5차 총회 개최

본 연합사무국은 회의에서 각 회원단체를 초청하였고, 각 회원 단체 지도자들이 2004년 9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개최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5차 총회에 참석할 것을 희망하며, 회의 준비 과정에서 각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희망하였다.

이상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4차 실무위원회 회의의 합의 사항으로, 본 합의사항은 중국어, 일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각 회원단체에게 발송한다.